

<수상한 도서관>

박현숙 글 | 장서영 그림

북멘토 | 11,000원 | 고학년

책 소개

여진이네 학교 도서관에서 '사람책 대출'을 시작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 주는 사람책. 사서 선생님은 전교생이 모두 사람책이 돼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람책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서 선생님이 믿었던 여진이마저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렇게 사람책 대출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지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의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검은 표지 속에 몰래 숨여 있던 일기의 주인을 추리하던 여진의 눈에 최근 절친 소영과 싸우고 외톨이가 된 수지가 들어온다.

1호 사람책으로 대출되었다가 10분 만에 독자와 싸우고 뛰쳐나온 두식이, 둔해도 너무 둔한 성준이,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인 미지, 마음이 약해서 탈인 여진이가 뭉쳐 일기장의 주인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비밀을 말하고 싶어 입이 달짝거리는 아이들의 일기 주인 찾기 작전은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한다.

마침내 일기장의 주인을 찾고, 소영이와 수지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여진이와 친구들은 소영이와 수지를 다시 절친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활동 목표

1. 나만의 '사람책'을 만들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이해할 수 있다.
3.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고정 관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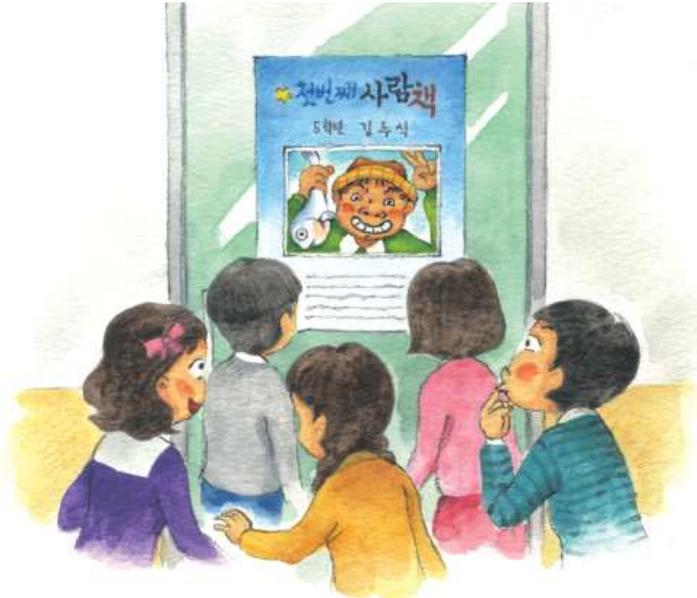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해 보세요.

1.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2. 일기장은 도서관 어디에서 발견되었나요?
3. 두식이 다시는 사람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여진은 왜 일기장의 주인이 수지라고 생각했나요?
5.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 펼치기 나만의 '사람책'

*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1호 사람책 두식이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책을 만들고 싶어 했나요?



2. 나만의 사람책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누가 보면 좋을 책인지, 이 책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지 나의 '사람책'을 소개해 보세요.

숨기고 싶은 일기장

1. 소영이는 도서관 깊숙한 곳,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책 속에 일기장을 숨겨 뒀어요. 여러분도 숨기고 싶은 게 있나요? 숨긴다면 어디에 숨기고 싶나요?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2. 여진이가 소영이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은 누군가가 꼭꼭 숨겨둔 무언가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생각 마무리 내가 생각하는 나, 너가 생각하는 나

1. 여진이와 친구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소영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기장의 주인이 당연히

수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 내가 생각하는 나와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